

한국여성 3 세대의 가정교육과 문화전수에 관한 연구*

- 손녀· 모· 조모 세대 간의
성 역할 문화전수를 중심으로 -

이은주(명지전문대학, 조교수)*

장지은(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김선희(명지전문대학, 교수)§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3세대 여성, 즉 손녀·모·조모 세대에 걸쳐 이루어진 가정교육 및 문화전수의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여성의 성 역할의 재생산에 주목하여 3 세대에 걸친 가정에서의 문화 전수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1차적으로 전국의 20대에서 90대까지의 여성 110명에게, 가정에서 전수 받은 가정교육 및 문화전수의 내용에 관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였다. 2차적으로는 3 세대 모두가 인터뷰가 가능한 일곱 가족을 선정하여 각 가족의 세대로 부터 삶의 경험을 듣는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전수 받은 가정교육 및 문화전수 내용을, 성 역할 재생산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설문 조사의 분석에서는,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은, 모 혹은 조모에게 '성공' 및 '학력' 을 중시하는 인식과 태도를 전수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면담 조사의 결과 분석에서는 한국 여성 문화전수의 주된 내용은, 세대 및 계층과 무관하게 '좋은 배우자 선택'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의 학력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배우자 선택이 신분 상승의 주요인이라는 문화가 세대 내에서 재생산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가정에서의 평생교육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국 3 세대 여성, 가정교육, 문화전수, 규범적 가정교육, 성 역할

* 이 논문은 2022년도 와세다 대학교 국제포럼 '동아시아 지역의 가정교육과 규범적 문화 전달의 현상(2022년 12월 23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 주저자: 이은주(026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 명지전문대학, tayory@hanmail.net)

‡ 교신저자: 장지은(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jcif@hanmail.net)

§ 공동저자: 김선희 (026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 명지전문대학, skim@mjc.ac.kr)

I.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정치 사회적으로 젠더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고 젊은 층에서는, 범죄나 선거이슈 등과 같은 사회적 사건에 대한 논쟁에서 남녀대결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젠더갈등에 관하여 청년층에서는 75%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주간경향, 2022). 양성평등(gender equality)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라는 쟁점은 개별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 21세기의 공통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신군자,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EF)이 2006년부터 경제활동 참여기회, 교육, 건강·수명, 정치적 권한 등 4개 부문의 통계를 이용해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 공표하는데, 한국은 매년 100위 밖에 머물고 있다(아시아경제, 2019). 나아가, 코로나 이전의 한국 남녀고용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71%인데 비해 여성이 47%로 20%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중앙일보, 2019). 또한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영향을 받는 계층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어서 여전히 한국여성 은 경제활동 참여기회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차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전통사회로부터 유래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조모 세대에서는 여성이 자아실현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생애에 걸쳐 경험하고 그러한 한계를 자녀세대에도 재생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을 자녀교육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하락하였으며,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를 꼽은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한국경제, 2022). 또한 30-40대의 젊은 여성에서는 자신의 커뮤니티 활동을 중시하면서 자녀에 구속되지 않고 삶을 사는 중산층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김미숙, 2015; 이은주, 2018).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스스로의 의식과 라이프스타일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젠더 갈등 그중에서도 자아의 사회적 문화적 형성에, 이른 시기부터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기관으로서 가정에 주목하여 차별적인 성 역할의 발생 및 지속, 그리고 변화하는 실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세대를 거쳐 여성차별이 어떻게 관습적으로 성 역할 내면화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여성이, 사회의 성 역할의 기대와 가정에서의 성 역할의 내면화 사이에서 자신의 성 역할 정체성을 형성하여 가는 모습을, 세대 간 변용에 주목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가정에서의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에 기반한 여성교육은, 성인이 된 이후에 성평등의식의 형성이나 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에 나오기 전에 이미 생육사

에서 형성되어 성 역할에 대한 일정의 경향성이 굳어진 아버투스는, 성인기의 여성교육의 효과에도 억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성년기에 부모의 교육적 개입을 통하여, 성인기가 되었을 때,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대응력을 조금씩 육성하는 것은 의미있는 교육적 과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적인 영역으로서 공권력이나 제도기반의 교육이 직접 침투하기 어려워,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 시기에, 부모의 젠더인식과 태도가, 그대로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가정은, 사회의 체계적인 교육적 산물이 가족 구성원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며 가장 밀접하게 학습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암묵지를 통하여 젠더이해와 젠더태도를 배워간다는 점에서, 가정을 적극적인 평생학습 환경으로 조명하고 종래의 가정에서의 성 역할 사회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의 과제로서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의 교육이나 문화를 통하여 습득한 성 역할 인식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3대 여성, 즉 손녀·모친·조모 세대에 걸친 가정교육 및 문화 전수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여성 성 역할의 재생산 주체를 ‘여성 세대’ 및 ‘가정’으로 설정하여 3 세대에 걸친 가정교육의 유형과 문화 전수의 내용을 내러티브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말하는 ‘문화 전수’라는 함의는 가정에서 여성에게 전수되어 왔던 성 역할에 대한 기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문화가, 여성 3 세대에 걸친 진로와 삶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여성 20에서 90대까지의 3 세대에 걸친 가정교육 및 문화 전수 내용을, 삶에 대한 경험적 진술에 근거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에서 모친의 특징

한국의 가정교육은, 가국일체(家國一體)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족 구성원을 간주하는 문화와 ‘효(孝)’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 깊다는 내용이 도덕 교과목을 중심으로 전수되어 왔다. 유교적 가부장적인 한국문화 속의 여성을, 사회문화적 위치에 주목하여 인류학적으로 연구해온 문화인류학자 조혜정은 ‘한 사회의 여성해방 운동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 - 대개 경제 체제와 문화 구조 간의 괴리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나야 했던 움직임(조혜정, 2008: 5)'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을 억압해온 주체는 정체 분명한 '큰 폭군'만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폭군'들을 포함하며, 그 작은 폭군이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다고 지적하였다(조혜정, 2008: 5). 박혜경(2008) 또한 한국의 기혼여성들의 일상의 노동이 간소화해짐과 동시에 자녀교육 경쟁을 위한 어머니 노동과 재산증식 노동이 새롭게 증가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지위적 보상을 부여받고 있는 점을 분석하였다(박혜경, 2008). 이는 유교적 사상 속에서 사회적 혹은 공적 영역에서 지위를 보상받지 못한 여성을 중심으로 사적영역에서의 지위를 보상받는 데 자녀의 교육과 자산증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미숙, 2015; 이은주, 2018).

시대별로는 1960년대의 여성들에게는, '현모양처'와 '현대화'라는 이데올로기가 혼재하였고, 1970년대는 전통적 현모양처에 뿌리를 두되 부업을 통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희생적인 여성'을 미덕화 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는 '현대 여성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었음을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한국 여성들은 여가 문제에 있어, 이 시기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와와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때라고 하였다(차민경, 2019). 나아가 박혜경(2009)은 전업주부의 정보수집과 공교육 관리는 자녀교육에서도 여성의 노동 강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명문대 출신의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우수한 성적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하였고 자녀들의 경쟁체제에 대한 동조와 저항이 모두 어머니의 정체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박혜경, 2009). 한편 나운경(2014)은 여성들은 자신의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아이를 위해 포기함으로써 모성이데올로기를 실천하며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대체할 '모성적 생산성'을 발휘함을 지적하며, 평생교육 안에서 모성의 재생산 노동을 생산 노동화 하는 가치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나운경, 2014: 1).

2. 성 역할의 사회화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가정교육은, 자녀의 사회적 역할, 특히 성 역할 정체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다. 성 역할은 한 사회에서 여성 또는 남성에게 따라 각기 달리 기대되는 행동양식과 사회적 역할(Block, 1973)로서 개인은 성장 과정 동안 남성적 역할이나 여성적 역할과 연합된 특성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성 역할 정체감을 확립하여 간다고 한다. 이러한 성 역할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정환경 요인, 교육기관 요인, 사회환경 요인 순으로 나타나는 데 그 중 가정환경 요인에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양육태도, 성 역할 태도 및 인식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고현, 황정련, 2013).

나아가 가정환경이 성 역할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기관보다 더욱 강하다. 강태중 외(2003)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담임으로 만나는 횟수가 아동의 사회화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 요컨대 학교 교사에 비하여 가정에서 부모나 어른들이 더 빈번하게 남성적 또는 여성적 경향의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춘희, 권용만(2008)에 따르면, 가정에서 모친은, 양육태도를 통하여 성 역할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언어를 통하여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과다한 요구를 통하여 오히려 자녀가 여성의 성공에 대한 두려움, 성장요구실현에 대한 장애를 겪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듯 가정교육에서의 성 역할 사회화는, 실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보이고 있다. 나아가 지나치게 남녀를 구분한 성 역할의 사회화는 성장시기에 동성집단의 선호와 그로 인한 특성의 사회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어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Martin, C. L., & Fabes, R. A., 2001).

한편, 성 역할의 사회화는 가족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의 유무, 거주지역, 경제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일수록, 기혼자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성 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정, 2013). 이러한 가운데, 여성의 취업과 교육수준은 여성 집단에서의 성 역할 고정관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유의한 수준에서 빈곤 가구에서 비빈곤 가구에 비해 가장장적인 성 역할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영미, 황경란, 김진석, 2015).

또한 거시적으로는 성 역할 기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국가의 보육제도의 개선, 기업의 돌봄참여 나아가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 속에서 발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안병철, 2010). 또한 양육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던 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거치고 사회환경의 영향력 특히 미디어 환경을 통하여 여성의 자기실현의 변화양상을 인지하며, 변화도 보여져 왔다. 그리하여 성 역할의 기대는, 한편에서는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전문직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을 뿐만아니라 기존의 남성의 일을 하는 '역할전환' 유목에서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김희정, 2007).

이렇듯 성 역할의 기대는 가정환경을 비롯하여 교육환경, 나아가 사회환경을 통하여 재생산되며 동시에 변화, 개선되고 있다. 또한 성 역할의 고정화나 보수화의 근간이 되었던 가정환경의 영향력 또한, 핵가족화, 모친의 학력·직력·경제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개성화, 전문화의 방향에서 양성 협동적인 측면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성 역할 기대 및 성 역할 사회화에 대한 유연성·변화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3. 가정을 통한 문화전수 연구의 의의

한편, 가정에서의 성 역할에 관한 문화 전수에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정의 문화가 사회의 문화로 확산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인 외(2001)가 제기한 것 같이 여성들의 사회적 직업적 지위가 매우 낮은 것이 사회의 차별 관행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오히려 가정 내에서의 성별 분업이 직장에서의 노동 분업으로 나타나는 모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재인 외, 2001). 물론 여성의 성역할 정체성 등이 오직 가정에서의 문화전수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사회변화로 인한 고용관행의 변화, 교육의 영향력, 미디어를 통한 사회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계속하여 성장과정에서의 성역할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력사회풍조가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나운경 외(2007)가 지적하듯이 모성수행의 가장 큰 부분이 자녀(사)교육으로서 간주되어 여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몰입과 헌신이 여성을 자발적인 ‘극성’으로 만드는 데 여기에는 여성을 교육담당자로 호명하고 상별로 훈육하는 내·외부의 가부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여성의 성역할 정체성에 대한 영향은 세대 간에 전승되는 가정에서의 문화와 함께, 그 여성이 살고 있는 사회 및 시대적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여야 한다. 나운경 외(2007)가 지적하듯이 모성에 대한 담론은 ‘동시성과 통시성 혹은 누적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이 모성경험, 즉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어머니로서의 경험의 과정(김현주, 2017)에서는 여성이 스스로 전통적 교육관을 재생산하기도 하지만, 사고의 전환이나 사회적 지지자들로서의 타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전환학습을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손녀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누적성보다는 동시성, 즉 시대와 사회의 특징에서 생기는 변화, 즉 학력이나 고용관행의 변화 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문화전수의 연구는 세대 간 분석을 통하여 누적성에 근거한 문화전수의 재생산을 보면서 동시에 재생산을 해체하여 가는 동시성의 특징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조모세대가 젊은 어머니로서 살아왔던 시대에는 동시성을 구성하는 성 역할 기대에 관한 문화적 사회적 자원이 빈약하여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재생산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고령자가 된 시점에서는 고령자도 다양한 외부학습요인에 의하여 보수적으로 가정을 통하여 전수된 문화를 해체하기도 한다. 박성희(2009)는 노년기에도 고령자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도와주는 지역사회의 자본으로서 이웃 망을 제안하였고 중년기 여성을 연구한 이지혜(2004)도 수다를 통한 학습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제도화되지 않은 무형식학습의 중

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개방적 소통과 사회적 지지 환경이 풍부해지면 중년기·노년기에도 여성의 성 역할 정체성 재구성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여성의 성 역할 기대와 관련된 문화도 세대 간의 문화전수를 통하여 재생산되는 부분도 있으나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을 통하여 전수된 문화로부터 자신을 재형성하는 과정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엇을 전수받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세대 간 여성의 성 역할 기대에 관한 문화의 실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대에서 90대까지의 여성 총 1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면담 조사를 통해 가정 내에서 여성으로서 전수받았던 가정교육 및 문화 전수의 내용을 분석한다. ‘과잉순용’을 강요받았던 모·조모 세대에서부터 ‘자녀관리 문화(김미숙, 2015)’로 적극적인 교육적 투자를 받아왔던 손녀 세대 간의 문화 전수 내용을 검증하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성차(姓差) 현실을 ‘가정’의 범주 내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 역할의 보수적 재생산의 환경이었던 과거의 가정교육, 특히 가정 내의 규범교육과 기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그 안에서 성 역할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교육의 모순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표 1>과 같이 1차 온라인 설문조사와 2차 면담 조사 10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온라인 조사는, 세대별로 유사하게 받은 교육에 관한 범주를 구성하기 위함이고, 면담 조사는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삶의 경험적 기술에 근거하여 한국 여성 세대 간의 주요 문화전수의 내용을 재구성화 하기 위함이다. 일곱 가정의 3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여 텍스트화 하면서 그들의 삶의 경험과 역사적 맥락을 연계하여, 한국여성의 문화 전수로 재구조화를 실시하였다.

John W.Creswell 에 의하면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그리고 문서, 집단 대화)으로부터 개인이 살아온 경험, 말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한다(조홍식 외 재인용, 2021:103). 또 Clandinin & Connelly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참여자들이 연대순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종종 연대순으로 정리되며 개인이 자신의 경험과 삶에 관해 이야기할 때 시간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Czarmwska, 2004; Ollerenshaw & Creswell, 2002; 조흥식, 2021, 104-108). 한편, 박병기 외(2015)는 이하와 같이 내러티브 연구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는 자연스럽게 참여자의 일부가 되며, 참여자 또한 연구자나 화자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이렇게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다시 사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존재적 성장을 이어가는 하나의 공유된 이야기적 경험인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단지 현장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의미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원천이라고 지적하는 Clandinin과 Connelly의 말이 이러한 내러티브 탐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박세원, 2007, 45-46)고 하였다(박병기 외, 2015: 384).

또한 강현석(2015) 외는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inquiry)란 개인의 경험에 관심을 갖는 탐구방식으로, ‘이야기하기(story telling)’와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story)’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reliving) 과정으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요구된다고 분석하였다(강현석, 2015).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의 삶과 의식에 접근 하였던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여성 내에서 재생산되는 성 역할 문화에 관해 내러티브의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면담 조사 대상인 일곱 가정의 3 세대 여성은 지속적인 유선 통화 및 10회 이상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기록을 통해 빈번히 언급되는 내용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사내용은 우선 3세대의 여성에 대한 가정교육 및 문화 전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1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표 2>와 같은 설문 문항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대에서 90대까지의 여성을 3세대로 분류하는데 애매함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현대사적 배경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대학생인 20대 여성은 초·중·고 및 대학 시절까지 여성으로서 남녀 차별에 노출이 심하지 않은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조모는 60-70대가 다수이다. 그리고 40대가 손녀인 세대는 조모가 90대 이상으로, 연령에 폭이 커서 3세대의 구성 및 역사적 배경이 상이하어, 공통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분류하였다. 즉 손녀 세대를 40대까지 포함시켜 모 및 조모 세대와의 비교가 가능한 세대로 구성하였고, 46세에서 65세는 학력을 중시해온 세대라기보다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거나 남자 형제의 학비 원조 및 가사 등 성 역할 기대에 부응한 담당역할을 주축으로 하였던 세대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66세 이상은 주로 학력과 무관한 세대로서 ‘가사담당’ 혹은 ‘생계담당’의 역할을 강요받은 세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사 시기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5일 까지 1년 7개월간이다.

2차 내러티브 면담 조사는 1차 온라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3 세대의 면담 조사가 가능

한국여성 3 세대의 가정교육과 문화전수에 관한 연구

한 연구참여자 일곱 가족을 선정하여, 손녀세대는 유선전화 및 면담조사로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였고, 모세대 일곱 명은 월 1회씩 10회에 걸친 인터뷰 내용을 취합하여 재구조화 과정을 거쳤다. 일부 고령의 조모에 대해서는 모세대가 대신하여 전달해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표 1> 세대별 온라인 조사 개요

구 분	조사방법	조사대상
1차 온라인 설문조사	2021년 4월 1일~2022년 11월 31일 전국의 20대에서 90대의 여성 대상 (총 110명)	20-45세 (30명) 46-65세 (60명) 66세이상 (20명)
2차 면담조사	전화 및 면담 조사 일곱 가족의 손녀·모·조모의 세 세대 (총 21명)	20-30대(손녀세대 7명) 50-60대(모세대 7명) 70-90대(조모세대 7명)

<표 2>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

구 분	내 용	문항수
가정내의 주된 문화전수 내용	가정교육의 주된 담당자	1
	강조되었던 예절교육과 가족행사	2
	가정 내의 성 역할	1
	부모 혹은 조부모가 가르쳐주거나 함께 했던 학교교육 및 학습	1
	주말 및 명절 등의 가족단위의 활동	1
	친인척이 모이는 계기	1
	가족 간의 대화 및 태도 유형	2
	형제간의 갈등 상황의 대처 유형	1
초·중·고 시절의 가정교육	초·중·고 시절 주요시되었던 예절 및 교육 유형	2
	초·중·고 시절 강조되었던 대인관계	1
	훈육의 유형	1
	칭찬의 유형	1
	성 역할 유형	1
	가족행사의 유형	1
진로 및 미래설계에 대한 기대	학력에 대한 기대	1
	사회진출에 대한 기대	1
	연애 및 결혼에 대한 기대	1
	독립에 대한 기대	1
	진로 결정의 주체	1
	타인과의 갈등에 대한 대처 유형	1

* 복수 선택 다수 포함

기 타	요즘 부모들의 양육태도에 대한 느낌	1
	본인 및 모와 조모의 학력 등	2
합 계		26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온라인 조사 참여자와 내러티브 면담 참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온라인 조사 연구참여자를 한국의 사회적 배경의 특성을 기준으로 <표 3>과 같이 구분하여, 20세~45세 30명, 46~65세 60명, 66세이상 20명으로 총 110명이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였다. 20세에서 45세의 손녀 세대는 여성의 학력 상승과 더불어 '전략적 자녀관리형(天童陸子, 2022; 新保敦子, 2022)' 교육을 받은 세대이며 여성의 학력과 성공 또한 중요시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2년생 김지영'*과 동일세대로서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전선에서 여전히 성차별을 겪고 있는 세대이다. 모세대인 46세에서 65세는 여성이 가정의 생계지원을 하거나 사회적 및 경제적 독립을 시도하였던, IMF 경제위기를 겪은 세대로 설정하였다. 66세 이상은 가정 내의 가사 및 노동을 주체적으로 하는 생계를 담당하는 세대로 설정하였다. 이 세대에는 전쟁 혹은 생계 활동으로 인한 남성의 부재를 대신하여 가장의 역할로서의 '강한 어머니' 혹은 '희생적 어머니' 상을 강요받은 세대이다. 즉 각각 '학력·성공' '자립 및 여성의 성 역할' '생계 및 노동자'로 세대별 키워드를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미시적 분석으로서의 내러티브 연구참여자는 일곱 가정의 3 세대 여성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계층 및 지역별로 A가족부터 G가족으로 분류하여 세대별 차이와 계층별 차이에 따른 삶의 경험과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의 역사적 맥락을 연결하여 문화 전수의 개념으로 재구성하였다. 계층의 구분기준은 연 수입을 중심으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상류층부터 하류층으로 구분하였다.

<표 3> 3 세대의 구분 기준

구 분	역사적 배경	가정내 문화전수 내용분류
손녀세대:	MZ세대,	전략적 교육,

* 조남주 작가의 2016년 출간된 소설로 대졸여성의 결혼 및 육아 과정을 현실적으로 담은 내용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이 도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남녀갈등이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화 하는 데 큰 계기가 된 도서이다.

20-45세 (30명)	IMF 베이비 세대	자녀관리 문화 세대
모세대:	IMF세대,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 부여 세대,
46-65세 (60명)	베이비부머 세대	가정에의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조모세대:	식민지 및 전쟁의	가사 및 생계책임자로서의
66세이상(10명)/	직·간접 경험 세대	강한 여성, 희생적 여성상
75세이상 (10명)		

* MZ세대: 밀레니얼 · 디지털세대

* IMF세대: 1997년도 IMF 구제금융시대의 외환위기 영향을 직격으로 맞은, 당시의 청년세대를 가리킴

IV 연구결과

1. 온라인 조사 결과

온라인 조사는 구글 온라인 조사에 의하여 전국 11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서술형 답변과 복수 응답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기술적 통계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조사 결과는 엑셀로 수작업하여 분석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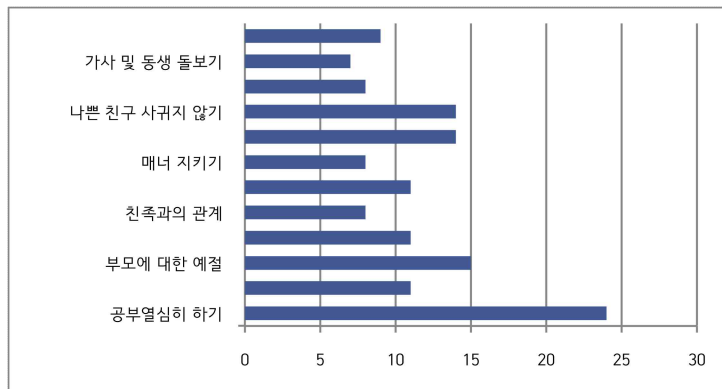
총 26 문항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가정교육 및 문화 전수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정하여 세대별로 내용을 정리한다. 가정교육의 내용 중 규범적 가정교육의 내용을 연령에 따라 3 세대를 비교 분석하였고, 문화 전수에 관해서는 ‘가정에서 자주 경험한 것’ 또는 ‘본인(여성)에 대한 진로에의 기대’의 문항으로 3 세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외의 일부 서술형 답변은 내러티브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공통점을 도출하여 재구성의 텍스트에 활용하였다.

가. 가정교육

3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 내의 가정교육 담당자’에 관해, 손녀 세대는 30명 중 22명인 73.3%가 ‘어머니’로 답변하였고, 모세대 및 조모 세대는 양측 모두 57.9%(각각 33명/ 11명)가 ‘어머니’로 답변하였다. 66세 이상에서는 다른 세대에 비해 조부모가 15.8%로 높게 나타났는데, 대가족의 가족구성이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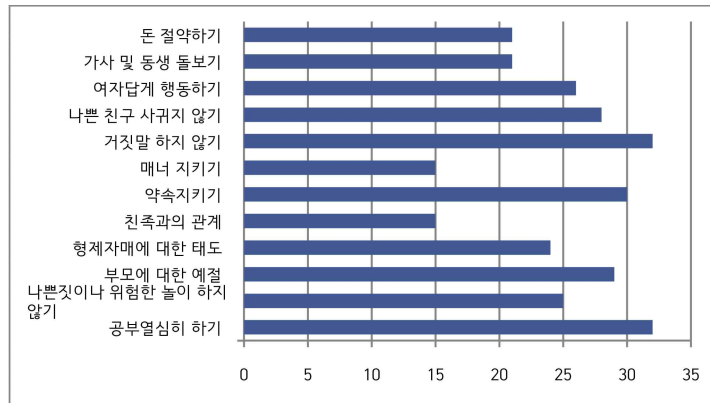
우선 20세에서 45세까지의 각각 ‘유아 시절 가정에서 중시된 것’, ‘초등학생 시절 가정에서 중시된 것’, ‘중·고등학생 시절 가정에서 중시된 것’을 살펴보았다. 20대의 경우 ‘전략적’으로, 전업주부인 엄마를 중심으로 사교육은 물론 가정교육까지 부담을 지고 입시제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 세대이다. 초등학교시절부터 규범적 가정교육과 무관한 ‘공부하기’가 높아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림 1]과 같이 ‘공부하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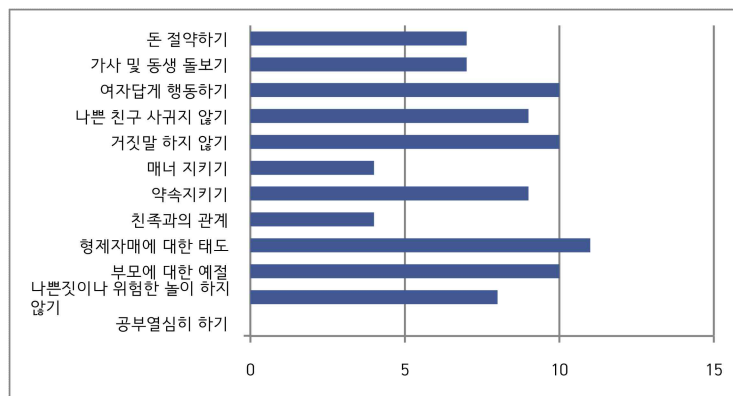
[그림 1] 20-45세 손녀세대의 중·고등 시절 가정에서 중시된 것

한편 46세 이상의 세대에서는 학력을 위한 교육보다는 규범적 가정교육에 관해 고루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에 대한 태도에는 ‘취업하여 가계를 지원하기’, ‘효도하기’ 등이 다수였고, ‘형제에 대한 태도’에는 ‘동생 돌보기’, ‘장남 학비 원조하기’ 등을 다수가 답변하였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모세대 역시 손녀 세대와 유사하게 중·고등학교시절에 60명 중에서 32명이 ‘공부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보편적이며 그 학력이 ‘취업’과 연계되기에 공부를 강요받은 세대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면담 조사에서 5, 60대에서 상업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본인은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은행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거나,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공장에서 돈을 벌어 집에 송금해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장남보다 낮은 학력인 전문대학 등에 진학하여 빨리 사회에 진출하기’ 등의 답변이 다수 있었다.



[그림 2] 46-65세 모세대의 중고등 시절 가정에서 중시된 것

반면 66세 이상에서는 ‘여자답게 행동하기’, ‘부모에 대한 태도’, ‘가사 및 동생 돌보기’ 등이 모든 시기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하기’가 높게 나타났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서는 [그림 3]과 같이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조모 세대의 다수가 초졸 및 중졸 이하의 학력이 많기 때문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3] 46-65세 모세대의 초등학교 시절 가정에서 중시된 것

나. 문화 전수

문화 전수의 내용은 가정 내에서 중요시된 것과 본인의 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이 손녀·모·조모 세대 모두 유사한 유형이 나타났다. 3 세대 공통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과 ‘좋은 배우자

를 만나는 것'이 높게 나타나며 20대의 경우는, '학력'을 가장 중시하였고 타 세대에서도 학력은 낮지 않은 특징이다. 즉 한국 여성으로서의 '성공'을 위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며 그를 위해 '좋은 학력'과 '좋은 배우자' 선택이 중요하다는 문화가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6세 이상에서 '사회적 성공'을 중시하는 답변이 높게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20대에서 '사회적 성공'의 비율은 낮았으며 여전히 '전문직 배우자', '좋은 배우자'에 대한 비율이 높게 유지되며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시하는 문화가 '어머니'를 통해 전수되고 있음이 반영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고학력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이 자녀교육과 자산증식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전문직 이외의 사회생활은 경시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박혜경, 2008; 김미숙, 2015; 이은주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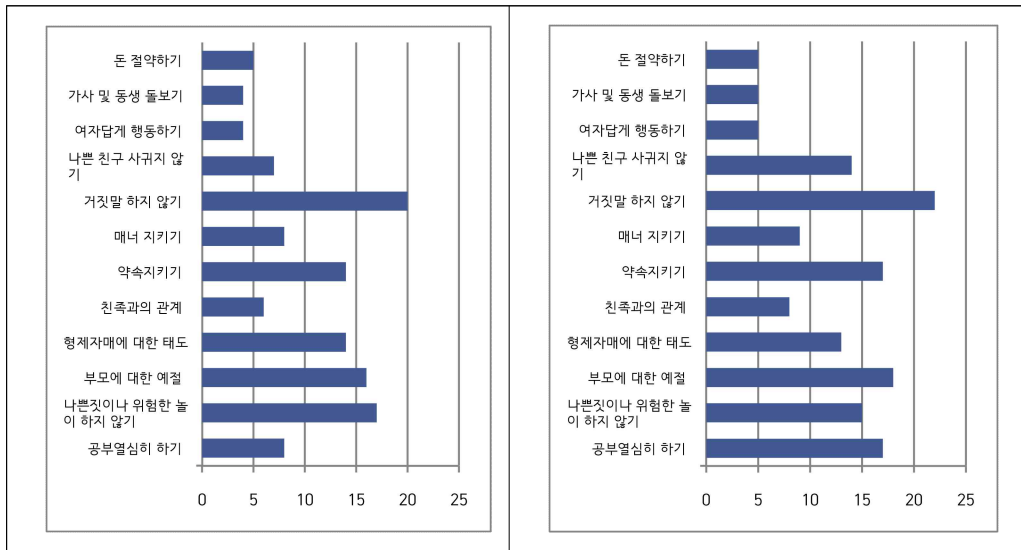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근현대사에 있어 식민지 및 전쟁 등의 비극적 역사 속에 한국 여성에게 있어, 70대 이상의 조모 세대는 농업 및 가사 노동자이며 때로는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강했다. 이에 비해 모세대는 장남 혹은 남자 형제를 돌보거나 학비를 지원하는 생계 지원자이자, 결혼 후에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는 전략적 전업주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손녀 세대는 모세대의 이루지 못한 꿈을 강요받으면서 성공을 위해 경쟁하는 세대라고 분류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장남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에 일찍 진출하였다', '남자 형제 돌보기' 등이 많았으나, 20대는 '가사는 전혀 강요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다수가 답변하였다. 예를 들어 20세에서 45세까지 답변을 보면 '중·고등 시절 가정에서 중시하였던 교육'에 대해서 총 30명 중에서 '공부'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나쁜 친구 사귀지 않기'가 14명으로 높게 나왔으나, '가사 돕기'는 7명, '형제자매에 대한 태도'는 11명뿐이고 이들은 모두 40대였다. 이는 딸에 대해서도 학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결과이며 전략적 사교육 및 입시정보 등의 주담당인 엄마로서, 20대는 입시교육에 몰입하였다는 답변으로도 방증 되는 부분이다.

또한 가정 내의 성역할에 있어 70대 이상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하였으나 40세에서 65세 사이에서는 남자 형제의 케어를 강요받거나 학비 지원 등으로 일찍 사회생활을 한 것에 대한 분노와 회한을 토로하였다. 예를 들면 60대 여성은 이하와 같이 증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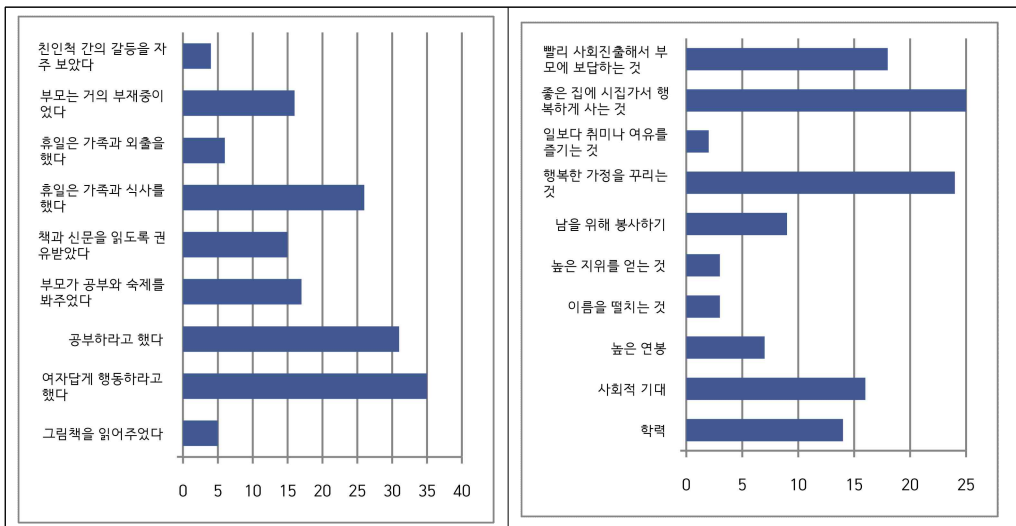
어머니는 늘 장남에 집착이 심했다. 그래서 남동생들을 타지역에 유학보내면서 나는 그 옆의 전문대학을 보내서 두 아들의 밥을 챙겨주라고 했다. 공부보다는 좋은 시절을 두 아들에 대한 돌봄으로 보냈다. 내 나이에 나쁜 학력은 아니지만 나는 늘 부모, 특히 엄마에게 분노가 있다, 지금도 엄마의 집착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70대 여성은 이하와 같이 증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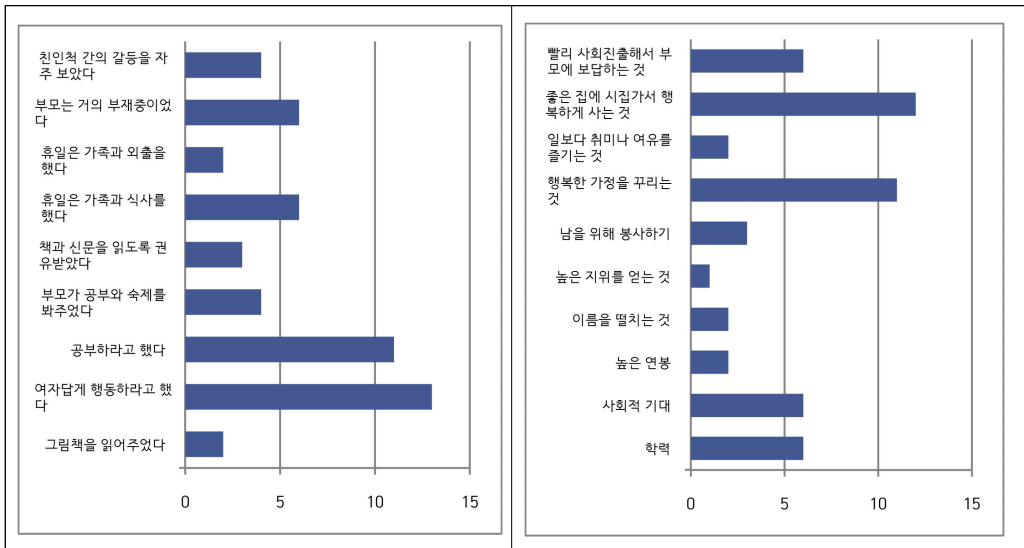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서 돌아가셨다. 그 후 어머니는 장남인 오빠를 아버지처럼 모셨다. 나는 7세부터 밥을 짓고 청소, 빨일 등 어머니가 힘들까봐 열심히 도왔지만 오빠는 늘 따듯한 쌀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학교를 다녔다. 나는 여자니까 학교 가다가 위협할 수 있으니 공부하지 말라고 했다.



[그림 4] 20-45세 가정에서 종종 경험하였던 것/ 진로에 대한 기대감



[그림 5] 46-65세 가정에서 종종 경험하였던 것/ 진로에 대한 기대감



[그림 6] 66세 이상 가정에서 종종 경험하였던 것/ 진로에 대한 기대감

다. 온라인 조사 분석결과

한국사회는 가족이 일체가 되어 생계와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족공동체가 전투적으로 살아온 현대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의미 또한 ‘학위’ 취득과 결부된 ‘성공’의 함의가 강하다. 즉 한국사회에서의 ‘가정교육’의 의미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과제 수행 혹은 사교육적 의미가 강하다. 그 외, 가족 모두가 의미를 두는 가정교육은 명절 등의 가족 행사 및 종교 활동이 주된 유형이라는 것을 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었다. 명절에는 장남을 중심으로 제사 지내는 법 등을 조부 및 부에게 전수받는 것이 유일한 가정 내의 규범적 교육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는 전투적으로 생계를 위해 살아가며 특히 여성은 부모를 돕기 위해 가사 역할을 담당하는 삶을 강요받았다고 볼 수 있다. 종교 활동으로서는 일부 가정에서 주말에 모든 가족이 교회 및 성당, 그리고 절에 가서 연령별 활동을 하면서 대인관계 및 비형식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중장년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의무교육의 학력을 취득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70대 이상에서는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무학에서 중졸 이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남자 형제보다 낮은 학력을 갖고 있었다. ‘가정의 연중행사 중 가장 중요시되는 행사’에 관해 손녀 세대는 30명 중에서 28명이, 모세대는 60명 중에서 56명, 조모세대는 20명 중에서 18명이 ‘설날과 추석’을 꼽았다. 또 모든 세대의 다수가 명절 행사에서 남녀 차별을 심하게 경험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족 행사에서 본인의 주된 역할’에 관한 질문에 모든 세대에서 ‘요리 만들기’ ‘정리하기’ ‘부엌일’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다수의 매체에서도 연속적으로 보도되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서울신문, 2022).

‘학습’의 의미에서의 가정교육에 해당하는 ‘독서’ 및 ‘신문 구독’ 등은 중산층 이상에서 주로 경험하였고,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 또한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종종 경험했던 것’에 대한 문항 10개 문항 중에서는 3 세대 모두 ‘여자답게 행동하라고 했다’와 ‘공부하라고 했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를 중심으로 ‘책과 신문읽기를 권유받았다’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교육과 학교 교사에게 전수받았던 교육관의 차이’에 관해 3 세대 모두 85% 이상이 일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내용에서는 ‘공부’와 ‘여성다운 행동’ 등이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전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0대 이상에서 ‘교련’ 교과목을 이수한 세대에서는 남녀 성 역할을 학교에서도 강요받았다고 답변하였다.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이해되었던 가정교육과 성 역할 부여 외에 독서 및 내면의 성장을 위한 학습은 한국사회, 특히 여성에게 기회가 희박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남자 형제보다 학력이 낮았고 교육으로부터 배제되었던 경험은 모·손녀 세대에게 경제적 안정에의 집착을 재생산하는 기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면담조사 결과

1차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 4>와 같이 다양한 계층* 및 지역을 중심으로 3 세대의 면담이 가능한 일곱 가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곱 가족의 3 세대를 대상으로 대면 및 유선의 면담내용을 기록하였다. <표 5>는 면담 내용을 가정 내의 세대별로 비교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A가족의 경우, 상류층의 조모, 전문직인 모, 프리랜서의 손녀가 그 대상이었다. 60대의 모세대 여성의 경우,

학교행사에 늘 부모가 같이 참여해주었고 학교 임원을 모두 맡아서 하도록 지도받았으며 주말에는 온 가족이 성당에 다니면서 성악과 악기연주를 배웠다. 사립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 시내의 명문대에 진학하여 결혼하였다. 품위 있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당연시하며 살았고 딸에게는 자유롭게 살기를 권유했다. 늘 남녀평등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으나 결혼 후에 양가 부모가 남녀형제 간에 일정 정도의 차별을 두고 있

* 계층의 구분기준은 연구참여자 본인의 판단(주관적 평가)에 맡겼으나, 경제적 판단이 강하게 나타남.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계층과 지역을 초월하여 B·C·D·E 가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세대에서 손녀 세대로 전수된 가정교육 내용을 보면 ‘좋은 남자 만나라’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라’ 등이 있었으며, 계층이 상이하지만 A·F·G 가족은 손녀 세대에게 ‘자유’ ‘방임’ ‘자립’ 등을 언급하며, ‘성공’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한 제한은 크게 강요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중산층 가정의 사교육 열이 가장 높고 전략적 자녀교육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는 결과를 방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받아왔던 20대를 중심으로 D·E 가족의 손녀 세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 역할 부여는 전혀 없이 오로지 공부만을 강요받았으며 부모에 대한 부채감과 원망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B 가족의 손녀 세대 여성은,

가사와 동생 돌보기는 아예 손도 못 대게 했다.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영어유치원부터 강남 학원까지 내가 쓴 학원비가 수억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학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전업주부로 나와 동생들을 키우는 엄마를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 결국 나도 결혼해서 그렇게 살 텐데 왜 그렇게 공부만 했어야 했는지 원망스럽다.

명문대학에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간 친구가 부럽기도 하다며 부모 또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고위공무직에 취업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침언하였다. 칭찬받은 기억은 오로지 성적관련이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명절 등 가족 행사는 아예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표 4> 계층별 면담자의 특성

구 분	연령	직업	학력	경제적 계층
(자녀구성 및 유무)				
A 가족: 3남2녀	93세	전업주부	고졸	상류층
1녀	63세	교육자	박사졸	상류층
독자	38세	무직	대졸	무응답
B가족: 3남3녀	85세	전업주부	중졸	상류층
1남3녀	56세	공무원	석사졸	상류층
독자	21세	대학생	재학중	무응답

C 가족: 5남2녀	76세	농업	초졸	하류층
1남3녀	50세	교사	대졸	중류층
독자	22세	대학생	재학중	무응답
D 가족: 2남2녀	79세	전업주부	고졸	상류층
2남2녀	54세	전업주부	석사졸	중류층
3녀중 장녀	20세	대학생	재학중	무응답
E 가족: 3남2녀	85세	농업	초졸	중하류층
1남1녀	62세	전업주부	초대졸	중류층
무	35세	교사	대졸	중류층
F 가족: 8남	94세	농업	무학	하류층
1남1녀	62세	노동직	고졸	하류층
무	31세	의료인	대졸	중류층
G 가족: 5남2녀	81세	상업	무학	하류층
1남1녀	50세	파트타임어	고졸	하류층
미혼	22세	취준생	초대졸	무응답

3. 내러티브 분석을 통한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연구, Clandinin과 Connelly의 분석방법을 채택하여, 자료 및 면담조사의 텍스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 경험의 진술에 관련된 ‘문화’와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에 관한 문화전수의 재구성(restoring)을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Czarmwska, 2004; Ollerenshaw & Creswell, 2002; 조홍식, 2021,107-108).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가정의 모 세대를 중심으로 3 세대의 연도별 스토리 맵을 구성하였고, 유년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의 이야기를 스토리 맵에 키워드로 추가하였다. 둘째, 결혼 전후와 자녀의 연령에 따른 개인사적 사건사고들을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과 연계하였다. 셋째, 일곱 가정의 스토리를 역사적 맥락으로 범주화하여 ‘한국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으로 재구조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사 및 역사적 맥락과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정에서 나타난 문화 전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맥락과의 논리적 연계를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재구조화된 텍스트를 제시하는 확인 과정을 매회 거쳤다. 그 분석결과를 각 세대별 정체성으로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전쟁·식민지 시기와 생계노동자로서의 조모세대

노동자로서의 삶을 강요받은 조모 세대의 삶 속에는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그녀들의 삶을 억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와 전쟁은 ‘남성의 부재’라는 억압을 주어 그것이 아들 출산, 즉 ‘장남 출산과 장남 출세’의 문화 전수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 시대에서는 ‘노동자’이며 ‘가정 생계 담당자’로서, 또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강한 어머니이자 강한 여성’의 정체성이 드러났고, 그러한 삶의 회한으로 인해 자녀 세대에 대한 ‘여자 팔자는 남자 나름이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전수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동시에 조모 세대는 본인의 힘든 삶이 ‘배우지 못한 탓’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예를 들면 F가족과 G가족의 조모 세대는 “내가 요즘 시대에 태어나면 열심히 공부해서 ‘뽕’으로 나가고 싶다, 출세해서 남보란 듯이 잘 살고 싶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산업화 · 고도성장기와 모세대의 경제적 자립 지향성

모세대는 어린 시절은 가사를 돕거나 동생을 돌보고, 일정의 학력을 마친 후 취업을 강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성장기에 따른 산업화 붐에 공장에서 ‘공순이’라는 차별을 받으며, 또는 가정 내에서 ‘부업’으로라도 돈을 벌며 가정과 장남의 학비원조, 결혼 후에는 생계를 돕던 여성상이 나타난다. 모 세대는 ‘부모와 장남에의 원조’와 ‘경제적 자립’ ‘전업주부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다. 모 세대의 특징은 학력이 높을수록 의식적으로는 ‘자유로운 삶’과 ‘보람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아이들이 중학생 이상이 되면, 기본적인 학원을 보내는 등, 계층과 무관하게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D 가족의 모 세대인 50대 여성은 이하와 같이 자녀교육관을 설명하였다.

석사이상을 졸업해도 전문직으로 일할 수 없는 현실이 늘 빠듯하다. 두 아이가 고등학교 때 매월 사교육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에 달했고, 큰애가 재수할 때는 1년간 5천만 원을 학원비로 썼다. 후회가 되지만 그게 부모의 도리이고 원망 듣고 싶지 않아서 해달라는 것은 다해줬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여유가 있다. 그에 비하면 애들한테 기본적인 학원은 보내야했다. 딸은 여유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편히 살았음 좋겠다. 물려줄 재산도 없으니 좋은 학력을 주고 싶었다.

또한 이 세대는 부모 세대의 노후를 지원하면서 부모에 대한 애정과 원망이 빈번히 교차함을 확인하였다. 부모 세대의 ‘남아선호’ 및 ‘장남에의 지원’을 강요받았고 20대에 상경 후, 자립하여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으며 스스로 연애결혼을 하여 ‘아파트를 구입해서 중산층

으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다. 무한경쟁시대와 손녀세대의 '학력' 및 '성공' 지향성

손녀세대는 '학력'을 통한 '경제적 여유'의 문화전수가 강했고, 사교육을 받으며 전략적으로 교육에 투자받은 세대로서 '경쟁'과 '성공'이 중시되었으나 좌절감 또한 나타났다. 높은 학력에 따른 급진적인 여성의 의식변화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사회진출과 고용 부재 등으로 인해 세대를 거쳐서도 여전히 경제적 여유와 생계가 중시되었고 그 조건에는 '좋은 배우자'가 강조되고 있는 공통성을 갖는다. 또 이 세대는 '엄마처럼 육아를 할 자신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혹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비혼 및 비출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는 '부모에게 투자받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성공해야 하는 초조함과 좌절감 또한 나타났다. 그리고 엄마에게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날 것'을 강요받고 있음을 일부가 증언하였다. 20세의 여성 H는 이하와 같이 증언하였다.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까지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는 바로 차를 타고 달려왔다. 주말에는 집에 와서 또 학원을 다녔다. 부모는 내게 너무나 희생적이었다. 대학에 들어가서 맘에 드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엄마에게 우리 집이랑 비슷하게 사는 아이라고 하니,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전문직을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지역과 경제적 계층으로 구분하여 진행된 연구참여자 3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분석 결과, 3 세대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체성은 '경제적 안정'과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조모세대에서는 생계를 위해 농사 등의 노동에 가담하게 되었고, 고도 경제성장기에 유년시절을 보낸 모세대에서는 경제적 원조와 독립을 강요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모 및 모 세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하위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은 손녀세대에게 학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성공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계층을 '경제력'에 두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하여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을, 세대를 거쳐 반복적으로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표 5> 세대별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내용의 재구성

구분	문화	경험과 역사적 맥락	문화전수로의 재구성
손녀세대	전략적 교육	사교육열, 학력중심	성공, 학력
	자녀관리 문화	경쟁시대, 남녀 성비 차	좋은 배우자, 자유

: 20-45세	과보호	부동산 투자, 한자녀 증가 학원뽕뽕이, 지방소멸시대	경제적 자유, 라이프스타일, 비혼, 비출산
모세대 : 46-65세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부여 가정에의 경제적지원 경제적 자립	제1차, 2차 베이비 부머 고도성장, 무한경쟁세대 도시집중화, IMF 경제위기 백만 명 출생 세대 장남우대, 남아선호 공순이, 공돌이	경제력, 성공 인내와 희생, 장남 지원 부모에 효도 좋은 배우자 행복한 가정
조모세대 : 66이상	가사 및 생계책임자로서의 희생적 여성상 남성의 부재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 부친부재, 생계, 노동 남아선호사상, 배움, 글쓰기	집안 살림, 노동, 가사 여자다움, 여자 팔자 좋은 집안에 시집 가기 아들 출산

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젠더인식 및 갈등에 주목하여 한국의 3대 여성에 걸친 가정 교육 및 문화전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곱 가정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하여 3세대 간의 가정교육 및 문화 전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2차적으로는 미시적 관점에서 여성들의 개인사와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경험적 진술의 공통점을 문화 전수의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성 역할 정체성 형성과 젠더갈등의 관점에서 여성들의 가정교육 및 문화전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첫 번째, 3 세대 내에서 공통적으로 전수되는 내용은 ‘학력’과 ‘성공’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좋은 배우자 만나기’에 대한 소망이다. 3세대 모두 각 세대별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목표로서의 ‘학력’이 가장 중시되고 있었다. 현모양처 세대를 거쳐 고학력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의식의 변화는 있으나 여전히 전문직 혹은 중산층 전업주부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 갖는 의미가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가정에서도 사교육 및 교과교육의 관리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력 중시 사회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는, 가정에서 경제적 안정에 기반한 가계의 계승에 대한 가치가 우선시 되

는 가운데 여성의 성 평등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현대사가 빈곤과 생활불안정을 극복한다는 명분 속에서 여성의 차별을 감수하게 한 사회풍토를 만들며, 성차별문화가 재생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예의범절’에 해당하는 규범적 가정교육은 3 세대 모두 공통적으로, 유아시절에는 중요시되었으나, 고학년이 될수록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거짓말 하지 않기’ ‘매너 지키기’ ‘식사 예절’ 등 보다는 ‘학력’과 ‘사회적 성공’이 더욱 중시되고 있었다. 나아가, 면담 조사를 통해서도 피억압자(조혜정, 2008)로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을 둘러싼 젠더 갈등은 조모 및 모 세대에서 반복되어 재생산되고 있었다. 조모 세대의 일방적인 장남 지원과 모 세대에서의 남녀의 성차별적인 지원, 그리고 손녀 세대에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배우자 선택의 중시 등이, 여성 세대 내에서 양태는 다소 다르나 의존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의 여성상을 전수하는 문화가 재생산이 되고 있었다. 이로써 가정에서는 남성중심의 사회의 관행을 그대로 사회화한 특징을 보이며 젠더인식과 태도에서 가정교육의 자율성이 견지되지 못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20대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생일파티’ 등의 핵가족 행사가 다소 중시되면서, ‘개인화’로의 전환도 보여지고 있으나, 여전히 ‘설날 등의 명절’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차별의 문화가 사회 및 문화적으로 재생산됨을 이해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명절 행사에서 남녀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고 모든 세대에서 다수가 언급하였다. 따라서 현재 3 세대의 성 역할 의식이 혼재하지만 유교문화사회에서 모와 조모세대가 연장자 권위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사회관행 속에서 성차별문화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학습에서의 소외로 인하여 내면적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가 희박했던 한국 여성의 삶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에 전업주부의 역할이 합류하여, 전략적인 자녀교육과 자산증식 쪽으로 성 역할 정체성을 강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가정뿐 아니라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 여전히 의식 제고나 사회적 공공성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저조한 현실이다(박재규, 2004). 즉 삶의 질과 공공성을 자각하게 하는 여성평생교육의 부재는, 세대를 거쳐 차별적인 성 역할 인식을 재생산할 수 있어 비판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 여성의 학력과 의식이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정 내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문화가 여성 세대 간에서 재생산되고 있음은, 가정 특히 젠더인식에 취약한 모친을 통한 문화전수로 인하여 발생한 모순이라는 관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연구성과에 주목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정에서의 젠더인식과 행동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다. 성 평등교육은 이미 글로벌 이슈이고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제도, 교육시설 등에서 다양한 교육 성 평등의 이슈가 의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조혜승, 안해정, 2022) 본 연구는 공식적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사적영역으로서의 가정에서의 성 평등교육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던지고자 하였다. 나아가 사회구조적인 성 평등 정책이나 환경조성에 의한 성과여부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일상적이고 오래된 젠더 갈등의 과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문화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자아정체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정에서의 성 평등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의 과제를 사회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교육의 영역에서 성 평등교육이 주요 과제로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모가 가정에서 젠더갈등을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젠더인식과 행동개발에 관한 강좌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에서의 젠더인식과 행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세대를 거치며 문화전수를 해오는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평생교육의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성 평등 교육연구는 주로 학교교육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었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이분화된 성 역할 및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부족하고(강병희, 박윤경, 정영선, 2022),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과학자의 성비와 관련하여 집필진 및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채희인, 노석구, 2022) 문제가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여성들이 이러한 학교에서만 아니라 모친을 통하여 가정에서 성 역할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다양하게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젠더행동은 아이의 젠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학교에서의 교육자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의 부모도 가정에서 성 고정 관념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양육자와 아동 모두의 행동과 언어에 주의를 기울여 성 평등한 행동을 강화할 책임(이은경, 김영빈, 2017; Chick et al., 2002; Mulvey & Killen, 2015; Vilkin et al., 2020; 유주영, 2022)에 대하여 공감을 심화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평생교육에서는 자녀의 젠더인식과 행동증진을 위하여 가정에서 모친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실천과제를 수행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의 성차별적인 언어, 역할, 태도가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은,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개선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삶에 대한 주체적 태도와 역량개발이다.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젠더 갈등은, 남성중심의 지배구조에 기반한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의 증가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차별의 그림자도 부각되며 이슈화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가기 위하여 이러한 사회구조에 그대로 적응하는 여성들의 태도와 맞물리며 차별성의 개선이 지체된 모순도 있다. 그리하여 여성평생교육과제로서, 가시화된 젠더 갈등의 해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과제에서 주체적인 참여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교문화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고 자신의 사회적 삶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을 강요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상에서의 가사와 노동을 강요받았던 모 혹은 조모 세대는 자신의 자녀에게는 전문적인 직업을 갖길 희망하고, 이를 위해서는 명문대에 진학해야 하고 그 결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교육방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가정 내의 가정교육 주체자인 모친을 중심으로 전수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 문화적으로 전수되는 의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여성평생교육 및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희, 박윤경, 정영선(2022). 성평등 이슈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입장 분석: 사회과 성평등 교육에의 시사점 도출. **열린교육연구**, 30(6), 255-280.
- 강태중, 민무숙, 정채숙(2005). '교직의 여성화'가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
- 고현, 황정련(2013). 교사와 어머니가 인식한 유아의 성역할 사회화 형성변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32(2), 213-236.
- 김미숙(2015). 중산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학부모들의 자녀교육문화: 분당사례. **한국교육사회학연구**, 25(3), 1-30.
- 김소정(2013).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1), 89-111.
- 김재인 외(2001). 지구화 시대의 교육변혁론과 여성주의. **한국여성학**, 17(2), 35-63.
- 김현주 (2017).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모성 경험에 나타난 전환학습 과정 탐구. **평생교육학연구**, 23(2), 31-60.
- 김희정(2007). TV광고에 나타난 성역할 이미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4), 7-68.
- 나윤경, 태희원, 장인자(2007). 자녀 사교육을 통한 모성 구성과정 - 평생학습자로서의 성인여성에 대한 이해의 한 방식. **평생교육학연구**, 13(4), 55-87.
- 나윤경(2014). 모성적 생산성과 여성 평생교육: 사회적 모성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 **한국평생교육연구**, 20(11), 1-21.
- 박성희(2009). 농촌여성노인의 생애사분석을 통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지역사회교육 전략. **평생교육학연구**, 15(4), 217-244.
- 박병기, 김지영, 박현아, 김영미(2015).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적용: 최근 5년간 연구의 내용분석과 하나의 실제연구. **교육심리연구**, 29(3), 383-408.
- 박세원(2007). 교사의 교육 활동에서 내러티브 탐구 과정이 가지는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0(1), 37-62.
- 박재규(2004). 지역평생교육기관의 여성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학연구**, 5(2), 55-78.
- 박혜경(2008). 중산층 기혼여성의 경험 세계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성격과 가사노동 가치인식. **페미니즘연구**, 8(2), 159-196.
- 박혜경(2009). 한국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연구**, 25(3), 5-33.

- 신군자(2004). 성 주류화 관점에서의 여성 평생교육의 방향. **평생교육학연구**, 10(4), 265-295.
- 안병철(2010). 한국 사회의 성역할 변화: 현황과 대응. **사회와 이론**, 17, 257-277.
- 양영미, 황경란, 김진석(2015). 빈곤여부에 따른 여성가구주의 생활만족도 분석 : 성역할 인식과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4), 85-114.
- 양춘희, 권용만(2008). 성역할 사회화와 성차별적 언어표현. **지역개발전략연구**, 5(2), 1-16.
- 유주영(2022). 가정에서 미술활동을 통한 성역할에 대한 재고. **조형교육**, 83, 89-104.
- 윤택립(2001). **한국의 모성**. 지식마당
- 이은경, 김영빈(2017). 유아 부모를 위한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여성학연구**, 27(1), 143-182.
- 이은주(2018). 중산층 여성의 교육열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학부모연구**, 5(2), 107-12.
- 이지혜(2004). 기혼여성의 학습생활 분석: 1960년대 출생 여성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0(2), 79-107.
- 정수경, 강현석(2015). 내러티브 개념의 다양성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23-45.
- 조남주(2016).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 조혜승, 안해정(2022). 글로벌 의제에 나타난 교육 성평등 이슈: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17(3), 43-82.
- 조혜정(200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차민경(2018). 현대 한국 여성의 여가문화에 대한 담론 변화연구: 1960-2010년대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경계연구**, 21(2), 197-229.
- 채희인, 노석구(2022).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본 2015 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3~4학년군 검정 교과서의 과학자 제시 실태 및 교사의 인식. **초등과학교육**, 41(4), 770-782.
- 新保敦子(2022). 東京下町の家族とネットワーク—東京都荒川区の事例から—, International Symposium in 2022 at Waseda University. 8-12, 12月23日, 早稲田大學國際會議場第2會議室.
- 天童睦子(2022). 女性の語りに見る文化伝達とジェンダー変容, International Symposium in 2022 at Waseda University. 14-18, 12月23日, 早稲田大學國際會議場第2會議室.
- Block, J. H.(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6), 512 - 526.
- Martin, C. L., & Fabes, R. A.(2001). The stability and consequences of young children's same-sex peer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7(3), 431 - 446.
- Chick, K. A., Heilman-Houser, R. A., & Hunter, M. W.(2002). The impact of child care on gender role development and gender stereotype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9(3), 149-154.

Mulvey, K. L. & Killen, M.(2015). Challenging gender stereotypes: Resistance and exclusion. *Child Development*, 86(3), 681-694.

Vilkin, E., Einhorn, L., Satyanarayana, S., Eisu, A., Kimport, K., & Flentje, A.(2020). Elementary students' gender beliefs and attitudes following a 12-week arts curriculum focused on gender. *Journal of LGBT Youth*, 17(1), 70-88.

서울신문(2022. 9. 5.). 성균관 “명절 끝 이혼율 증가, 유교 제 역할 못해” 반성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5500177&wlog_tag3=daum
에서 2022. 1. 9. 인출.

아시아경제(2019. 12. 18). 한국 성평등 지수 108-세계 성평등 실현되려면 99.5년 걸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21814463909259>에서 2022년 4월 18일 인출.

주간경향(2022. 10. 17). 국민통합위, 청년 젠더갈등 실태조사 착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210071401261에서 2023.
3. 15 인출

중앙일보(2019. 3. 5). 한국 OECD회원국 중 직장 여성 처우 최하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02594> 에서 2022. 12. 10 인출

한국경제(2022. 11. 22). 알파 세대 교육법과 AI코딩.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12139961> 에서 2022. 11. 29 인출.

· 논문 접수 2023. 02. 14 / 수정본 접수 03. 10 / 게재 승인 03. 24

· 이은주: 와세다대학교 및 같은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및 박사 평생교육과정을 졸업하고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였음. 현재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상담과 조교수로 재직하
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마이너리티 교육, 평생교육, 다문화 교육 등임.

· 장지은: 동경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연구과에서 평생교육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
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함. 현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중임. 주요관심분야
는 미디어교육, 여성교육, 학습공동체, 집단학습 등임.

· 김선화: 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직업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과정 분야에서 박사학
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상담과 교수로 재직 중임. 관심
분야는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임.

Abstract

**A Study on Home Education and Cultural Transmission
of Third-Generation Korean Women: Focus on the
Propagation of Gender Roles among Granddaughters,
Daughters, and Grandmothers**

Lee, Eun Ju(Myongji College)

Jang, Ji Eun(Sungkyunkwan University),

Kim, Sunny(Myongji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and describe the core characteristics of home education and cultural transmission among three generations of Korean women: namely, granddaughters, daughters, and grandmothers. The study analyzes the content of cultural transmission in the home over three generations with a focus on the propagation of women's gender roles. The study employs a narrative approach to the research, being fundamentally qualitative in nature. First, 110 women aged 20 to 90 were surveyed (online) on the content of home education and cultural transmission within their families. Second, seven families with three living generations of women were interviewed and their relevant life experiences recorded. The content of home education and cultural transmission received within the family were analyzed, with focus on the propagation of gender roles.

The analysis of survey results reveal that younger Korean women continue to inherit attitudes and perceptions that prioritize success and education from their mothers or grandmothers.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 results show that a key concept culturally transmitted through generations of Korean women was the importance of choosing a good spouse. This holds regardless of generation or

social class. This suggests that spousal choice remain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social mobility for Korean women, despite an increase in women's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The work concludes by describing the implications for policy carried by the analysis and proposes lifelong education in the home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 Key words: three generations of Korean women, family education, cultural transmission, normative family education, gender role.